


오리는 무공해 쌀을 생산해 주는 고마운 일꾼 오리농법(農法) - 이규태

키스를 한문으로 친취(親嘴) 또는 접문(接吻)이라고 한다. 친취는 조류의 주둥이인 부리를 가까이 댄다는 뜻이요, 접문도 부리를 맞댄다는 같은 뜻이다. 오리과 조류들은 먹이를 먹을 때 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부리 둘레에 발달한 감각으로 먹는다고 한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애욕의 감각에 어필하고자 부리를 갖다 댄다. 이 오리들의 사랑을 보고서 친취니 접문이니 하는 애정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라 한다.

오리는 사람에게 키스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부창부수(夫唱婦隨) 아닌 부창부수(婦唱夫隨)라는 새 모델의 수범이기도 했다. 샤를르 페리에는 이렇게 말한다. “오리는 아내의 눈을 통해서만이 매사를 보는 남편의 상징이다. 신은 오리 수컷으로부터 목소리를 빼앗음으로써 아내에게 반론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하여 암컷이 수다스럽게 구혼을 하면 그저 목을 꺾고 무릎 꿇어 양전하게 따를 뿐이다.”

성호이익(星湖李瀾)은 화합(和合)의 지혜를 보아내고 있다. 한 오리가 울면 물오리가 모여 울고, 한 오리가 동으로 가면 물오리가 동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모두 따라 가는 것은 서로 사심이 없고 화합하기 때문이라 했다. 희랍 신화에서는 낮에 베를 짜고 밤에는 그 잔 베울을 풀기를 무한 반복하는 허사와 도로(徒勞)의 신 페네로페와 오리를 동일시한다. 한데,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오리의 신 페네로페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지고 있다. 곧 짜고 풀고 하는 일이 허사가 아니라 낮에 인류가 파괴하고 오염시킨 자연을 밤에 회복시키길 무한 반복하는 환경의 신으로 재평가 받고 있는 것이다.

서양에선 닭이 금계란을 낳는데 동양에서는 오리가 금분(金糞)을 낳는다. 중국문헌<영남이물지(嶺南異物志)>에 광주(廣州)에 오리를 방사하는 왕가(王家)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 오리들이 금똥을 누는 바람에 그를 거두어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리는 자연속의 금속성 물질도 잘 주워 먹기에 냇물에 흘러든 사금을 먹는 것이 금똥이 된 것일 게다. 곧 중금속을 없애주는 해독금(解毒禽)이요, 논에 잡초를 뜯어 쪼아 먹는 제초금(除草禽)이며 눈에 기생하는 벌레를 선호하는 살충금(殺蟲禽)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는 무공해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들 중에 눈에 오리를 놓아 키르는 오리농법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오리를 보내주면 농민들은 그 대가로 오리를 놓아 키른 논에서 거둔 논에서 거둔 오리쌀을 보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마리당 10평 넓이의 논을 정화한다니 한마리기에 20마리가 필요한 셈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아름다운 도농(都農)교류의 페네로페 운동이 아닐 수 없겠다.

(조선일보 이규태 코너에서 발췌)